



전자신문 / 서인주 기자 (sjj@etnews.co.kr)

Photonics Special III

광주 광산업 100억 CEO 포럼

無에서 有를 창조하다

광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광주광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10여 년부터 진행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광주광산업은 소비도시로 알려진 광주의 경제지지도도 바꿔놓고 있다.

자동차와 가전산업과 함께 광주시 3대 주력산업으로 광산업이 당당히 어깨를 견주고 있는 것.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광산업 매출은 2조 5,400억원이었다. 지난해 1조 6천 억원에 비해 1조원 가량 매출이 늘었다. 매출증가는 후발경제요소인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8,000여 명이 광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얻었다. 벤처수준에 불과했던 광산업 기업들의 성장세도 눈부시다.

기술력과 시장 잠재력을 믿고 광주에 동지를 튼 기업들이 이제는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각종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 기업들은 내공을 단련해왔다.

때마침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열풍이 불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에 대한 공감대가 퍼져가면서 광통신과 LED 등 광산업 수요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

- ◇ LG이노텍, 글로벌광통신 등 22곳 달해
- ◇ 경험, 노하우 공유로 1,000억 매출 도전

100억 매출을 돌파한 기업들도 속속 등장했다. 중소기업에 있어 '100억 매출'은 단순한 경영지표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자부심과 상징성을 담고 있다. 따라서 100억 매출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회사의 경쟁력을 인정받는 또다른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1,000억 매출'의 디딤돌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수치다. 이에따라 광주시와 한국광산업진흥회는 100억 매출을 달성한 광산업 CEO와 머리를 맞대고 향후 비전 마련을 위한 포럼을 준비했다.

지난 5월 23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광주지역 소재 22개 광산업체 대표를 중심으로 '광산업 100억 CEO 포럼' 창립 발대식을 개최한 것.

이날 발대식은 LG이노텍, SDN, 심포니에너지 등 광주 광산업 100억 CEO 클럽 회원 22명과 광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유관기관·단체 및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운태 시장의 인사말과 매출 100억 달성 기념패 증정, 김진봉 광산업대표자협의회회장의 '한국 광산업의 비전' 발표, 연세대 신무환 교수의 'LED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이란 주제의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광산업 100억 CEO 포럼'은 광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추진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광주 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목적으로 결성됐다. 앞으로 중견기업과 선도 스타기업 탄생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높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조규중부회장은 "광산업 100억 CEO 클럽에 속한 기업들이 다른 중소기업을 견인하고, 상생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면 머지않아 '광산업 1천억 CEO 클럽'의 결성도 가능하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광주 광산업은 지난 2,000년 광주시가 지역산업 진흥사업으로 기획해 의욕적으로 육성한데 힘입어 지난해 광주 지역 광산업 전체 매출액이 2조 5,400억원을 넘어섰으며, 연매출이 100억원을 상회하는 업체수가 22개에 달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광산업 100억 CEO 클럽'에 속한 주요기업은 LG이노텍, 엘이디라이트, 광주인탑스, 우리로광통신, 오이솔루션, 휘라포토닉스 등으로 LG이노텍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광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기술변화가 빠르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 광산업 100억 CEO 포럼 창립 회원

업체명	대표	업체명	대표
광주인탑스(주)	김형태	(주)울원엔지니어링	문창식
글로벌광통신(주)	박인철	엔하이테크(주)	박호진
서울반도체(주)	이정훈	엘이디라이텍(주)	이경재
신한포토닉스(주)	주 민	LG이노텍(주)	허영호
심포니에너지(주)	김태성	(주)지오메디칼	박화성
SDN(주)	최기혁	(주)코셋	김재현
(주)연호전자	최연학	(주)탐인프라	박찬진
(주)오이솔루션	박용관 / 추안구	(주)태종C&I	정중선
(주)옵테론	신권식	(주)포스포	윤호신 / 박승혁
옵티시스(주)	신현국	(주)피피아이	김진봉
우리로광통신(주)	김국웅	(주)휘라포토닉스	이기승



연세대 신무환 교수는 “LED 등 한국광산업 구조는 ‘동반성장’이라는 국가의 중요아젠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국가적인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최대 최대의 LED조명 시장이면서 핵심 원자재의 절대적 보유국인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관계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올해 광주 광산업 전체 매출액 3조원, 연매출 100억 달성 업체가 30개 업체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광산업 100억 CEO 포럼’ 결성을 통해 광주 광산업을 리딩해 나가는 선도기업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분기별 정기모임을 개최해 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발굴과 기업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외 광산업체의 광주지역 투자유치와 신규 고용창출도 적극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